

추울수록 더 강해지는 보안기업, 이글루시큐리티

박은하 대리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왜 '이글루' 일까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에스키모인의 얼음집인 '이글루'는 외부의 바람이 거세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더욱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이글루시큐리티(www.igloosec.co.kr)는 외부로부터의 해킹과 불법적 접근이 거세질수록 고객의 소중한 정보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죠.

지난 1999년 11월 글로벌 보안관리 전문기업을 목표로 설립된 이글루시큐리티는 얼음집 '이글루'와 같은 보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대한민국 보안시장에 ESM(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이라는 다소 생소한 제품을 발표한 뒤, 'Security is Management'라는 모토 아래, ESM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보안관리(ESM) 분야는 각 산업군별로 보안장비를 일정 수준 이상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 금융, 일반 기업들의 업그레이드가 시작됐으며, 지방자치 단체 및 교육(대학, 교육청)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해 2008년에도 ESM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글루시큐리티에서는 이와 함께 최근 신제품 3종을 포함한 차세대 컨버전스형 정보보호 관리 모델인 "eXTRiM(neXT generation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Model)을 발표하면서 보안관리 제품을 라인업하는 등 바쁜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IT 불황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기업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를 도약의 티핑포인트로 명명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안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S**



▲ 이글루시큐리티 산악 결의대회